



기획

## ‘조각주체’라는 이름의 플랫폼 호모 이코노미쿠스 조각투자, 리셀 또는 조각난 정동\*

김예란 광운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이 연구는 조각투자의 기술경제적 조건을 검토하고, 그 안에서 형성되는 조각주체를 규명한다. 자산화, 디지털 플랫폼의 경제 및 기술 조건을 검토하여 누구나 투자자가 되고 모든 것이 자산화되는 현재 금융자본주의의 본성을 논한다. 그 바탕 위에서 한국 사회에서 진행되는 조각투자의 현실을 분석한다. 금융자본주의는 미시화를 통한 혁신적 금융상품 개발로 시민을 투자자로 변신시키고 디지털 플랫폼은 이 기괴한 변형이 편리하고 쉽게 될 수 있도록 보편화한다. 이 경제기술 기반 위에서 현실적인 불가능성 위에 욕망의 보편화가 진행될 때, 미래의 주인이라는 이름으로 현재의 노예를 부를 때, 이 모순된 상황에서 주체는 조각으로 파열되어 매번 다른 목소리와 태도로 응하고 따르고 들뜨고 좌절한다. 이처럼 조각주체는 고도로 발전한 금융자본주의 및 플랫폼 체제 안에서, 그 자신도 데이터 조각의 형태로 행하고 처리되며 조각의 대상에 투신하여, 욕망과 공포의 조각난 정동을 표출하는 주체다.

**KEYWORDS** 조각투자, 리셀, 자산화, 플랫폼, 조각주체

---

\* 이 논문은 2022년도 광운대학교 교내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해 연구되었습니다.

\*\* yeran@kw.ac.kr

## 1. 시작하며

이 글은 투자라는 행위가 디지털 플랫폼 시스템과 결합하며 대중화되는 상황에서 구성되는 주체성과 정동의 문제를 다룬다. 금융, 자산, 자본과 같은 말들이 일상적으로 들리고 갖가지 앱과 플랫폼은 “당신의 자산을 관리하고 키워드립니다”는 광고를 요란스럽게 하고 있다. 투자, 정확히는 미시 규모의 투자에 해당하는 조각투자 현상에 주목함으로써, 이 연구는 노동의 관점에서 디지털 주체화를 논했던 이전의 연구들(예. 김예란, 2015; 이희은, 2014; 채석진, 2021; Scholz, 2012 등)과 연관되지만 분명히 구별된다. 필수 노동보다는 자기 의지가 강하게 개입하며, 흥분과 열정 그리고 무노동의 추가 이익을 거두기 위한 나름의 이해관계와 전략을 가지고 투신하는 행위(Hirschman, 1977/1994)가 투자이기 때문이다. 이 글은 신자유주의, 디지털 기술, 금융자본주의의 결합 체제 안에서 사회적 불평등이 심화되는 동시에 시민의 욕망이 투자로 정향되는 상황을 분석하고, 이 상황에서 형성되는 주체를 ‘조각주체’라는 개념으로 설명한다. 이후에 상술되듯이 ‘조각’은 최근 유행하는 조각투자에서 사용되는 어휘이기도 하지만, 현재 온전한 1이 되지 못하고 조각들로 미세화, 파편화되면서 그 무수한 조각들이 플랫폼에 의해 총체화되는 인간의 삶과 그 대상 및 환경의 본성을 표현하기 위한 개념이다.

조각투자는 가진 자들의 거대 투자와 구분된다. 물론 취미로 하는 조각투자자도 있겠지만, 낯선 새로운 흐름에 몰려드는 집단 - 흔히 ‘MZ세대’라고 호명되는 이들 - 은 우연히 소규모의 시도를 하거나 빚을 지면서(빚투)까지 영혼을 끌어모아(영끌) 투자를 하고 벌레처럼 고통을 겪는다고(빚투개미) 묘사된다. 이 물결에 참여하든 하지 않든, 노동을 해서 임금을 받고 그에 적합한 틀로 삶을 유지한다는 사고방식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구닥다리 태도로 보이며, 예전과는 다른 경제원리(이른바 재테크)를 채택하고 실행하며 살아야 하는 세상이라는 불안과 초조가 우리 삶

에 빠져있다. 어느 정도의 자금을 모으거나 빌어서 ‘작고 뚝뚝한’ 자산을 구입한 후 차익(소위 ‘갭’)을 거두거나, 크고 작은 혁신적 기술상품에 투자하거나, 소소한 돈이라면 디지털 앱 서비스에서 “관리”라도 하는 식의 대중적인 삶의 경험이 이에 해당한다. 정확한 기술 논리나 운영 원리는 모르더라도 이렇듯 자산과 기술 시스템으로 강화된 삶의 목표가 유혹이나 호기심, 혹은 필연적인 요청으로 우리의 내면에 파고 들어오고 있다. 물론 이러한 작은 규모의 경제활동이 개인이 직면한 현실적 어려움 해결에 도움을 주는 하나의 방편이 될 수도 있겠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이 모든 사회경제적 분위기가 현실적 문제 해결을 위한 침착한 계획으로 말해지기보다는 그리고 그 현실적 실익 가능성에 대한 정확한 정보유통과 판단행위가 진행되는 대신, 이 모든 행위의 목표는 ‘강남부자, ‘대박’ 같은 허구·허위적인 목표로 초점이 맞춰지며 환상과 좌절을 격렬하게 오가는 삶의 방식을 유도하고 정당화한다는 사실에 있다.

이후에 상술되듯이 금융자본주의는 그 자체가 경제적인 뿐만 아니라, 문화적이고 정치적이다(Muniesa, 2021). 이 안에서 적극적인 실행에서부터 반대까지 다양한 입장이 형성되고 때로는 심한 갈등이 일어나기도 한다(Mehrling, 2017). 금융, 자본, 자산 그리고 디지털 플랫폼이 결합하여 낱알이 새로운 양상을 낳고 있는 이 복잡한 흐름 중에서 이 연구는 특히 사회 대상이 현존하여, 금융과 문화, 투자와 소비가 중첩되어 구체적인 사물 대상으로 나타나는 교점으로서 ‘자산’, 보다 정확히는 자산의 대중화된 형태인 ‘조각투자’에 대한 문화적 해석을 시도한다.

이 주제가 유의미한 이유는 월드와이드웹의 탄생 이후 전개된 디지털 역사에 주요한 변곡점으로 이해되는 ‘투자’의 대중적 확산 및 일상화와 연관된다. 멀리는 ‘인터넷’ 환경에서 ‘참여’하는 ‘정치적 인간’과 가까이는 ‘소셜미디어’ 환경에서 ‘교호’하는 ‘사회적 인간’ 단계에서 더 나아가 이제 ‘플랫폼’ 환경에서 투자하는 ‘경제적 인간’, 즉 플랫폼 호모 이코노미쿠스가 출현했음을 알리기 때문이다.<sup>1)</sup> 이 글의 논제가 되는 미디어 환경은

디지털 플랫폼이다. 플랫폼 이용 과정에서는 인터넷에서의 집합성이나 소셜미디어에서의 대인적인 연결성은 상대적으로 약화된다. 대신 플랫폼에 대한 이용자의 행위가 데이터로 추상화되면서 인간은 탈주체화되고 해당 데이터는 알고리즘 자동화 기능에 의해 플랫폼 기업의 자원으로 전유된다(백옥인, 2014; Lazzarato, 2014).

나는 플랫폼 환경이 조형하는 호모 이코노미쿠스의 한 유형으로 “조각주체” 개념을 제안한다. 현재 지배적인 자본주의 형식으로 플랫폼 자본주의가 주효하며, 이에 상응하는 인간 유형으로 플랫폼 호모 이코노미쿠스가 담론적으로, 실질적으로 대두하고 있음을 분석한다.<sup>2)</sup> 이 작업은 구체적인 플랫폼, 서비스, 행위자를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대신, 이러한 다수의 요소를 아우르며 조각투자라는 모호하고 불분명한 형태의 사회적 현상이 조형되고 그것과의 직간접적 경험을 통해 진행되는 조각주체화를 이론적으로 해석한다. 조각투자와 관련된 담론과 현상에 대한 접근을 통해 그의 시간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성격을 규명하고 결론적으로 플랫폼 호모 이코노미쿠스의 대중화된 유형으로 조각주체를 개념화한다. 정리하면 디지털 기술과 금융자본주의가 만나 기술적 편리성, 경제적 미

---

1) 이는 구체적으로 월드와이드웹(Worldwide Web: WWW)이 발명된 30여년 전부터 시작된 ‘인터넷’ 환경,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틱톡, 유튜브로 기술되는 ‘소셜미디어’ 환경, 넷플릭스와 아마존 TV로 대변되는 ‘플랫폼’ 환경으로 이어지는 환경변화에 따라 진행된 인간의 유형의 변형에 해당한다. 인터넷 환경에서는 포털 사이트나 게시판에 공론장이 개념이 투영되고 이에 대한 행위자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인간으로 묘사되어 ‘정치적 인간’의 디지털 구현으로 조망되었다. 이어 소셜미디어 환경에서는 공개적 공공성 대신 개인 또는 공동체의 직접적인 소통과 공유가, ‘소셜’의 말 그대로 ‘관계와 친교’의 어휘가 부각되며 ‘사회적 인간’의 출현이 강조되었다. 여기에서는 채팅 같은 소소한 사적 대화나 발화가 주된 커뮤니케이션 양식이다. 플랫폼 환경에서는 알고리즘 자동화 기능에 반응하는 이용자의 특성이 강조된다. 참여적이거나 관계적인 인간보다는 데이터화되는 존재로 설명된다. 이 지점을 이 글에서는 ‘경제적 인간’의 관점에서 조망한다. 물론 이 이행은 전적인 대체가 아니라 누적과 중첩의 성격을 띤다(Couldry & Mejias, 2019; van Dijck, 2013).

2) 물론 플랫폼을 이용하기에 그 과정에서 데이터 제공을 한다는 점에서 디지털 노동자이기도 하지만(Terranova, 2004), 여기서 주목하는 것은 그가 경제적 실익을 거두고자 의도적으로 실행하는 목적적 행위에 관한 측면이다.

사회, 문화적 욕망이 결합하여 대중화된 주체로 조각주체를 제안하고, 그 사회, 경제, 기술, 문화 차원에서의 주체화 양식을 설명한다.

미리 간단히 소개한다면, 조각주체는 이후에 상술될 조각투자 현상에서 응용된 개념이다. 시간적 한계성과 불균질, 경제적 불안정, 사회적 경쟁 격화, 과잉 소비욕망, 브랜드 지배적인 대중문화 현상이 겹치면서 나타난 미세하게 파편화된 주체가 조각 주체다. 이는 자율과 근면으로 규범화된 믿음이 이상화되었던 산업화시대의 노동자와 뚜렷이 구분된다. 조각주체는 빠르게 변하는 투자 유행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만 현실적인 물적 근거는 허약하다. 그래서 대성공(대박)을 알리는 소문들과 달리 그의 투자는 대체로 실질적인 경제적인 성공보다는 허망한 기대와 시도의 제스처에 멈춘다. 특히 주체가 '조각'으로 치환되는 이유는 그의 투자 대상이 조각일 뿐 아니라, 주체 자신이 내파된, 충돌적인 조각들로 구성된다는 점에 있다. 그의 작은 시도 행위 역시 미시적으로 데이터화되고 1이 채 되지 않은 숫자들의 계산으로 산출, 평가되는데, 역설적이게 이 모든 것들의 총체적 추상화는 플랫폼에 의해 통제된다. 이를테면, "스타벅스 커피 '더블 에스프레소 칩 프라푸치노(6300원)' 한 잔 값을 아껴 강남 빌딩과 명화의 주인"이 되는 삼십 대 회사원, 아마존 0.1주나 테슬라 0.1주를 소유하여 수익을 노리거나, 이 글에서 자주 등장할 여러 국내 조각투자 플랫폼에 참여해서 "평균 기간은 48일, 매각률은 70%, 평균 수익률은 17.43%"을 거두는 식으로, "쫓개면 보이는 돈"에 충실한 인간(이지현, 2022) 등, 이처럼 미시화된 수치들의 복잡한 계산과 절차에 흥미를 키우고 부지런히 참여하는 자를 조각주체의 사례들로 말할 수 있다.

이어지는 논의는 조각투자의 맥락과 한국 사회의 풍경을 묘사한 후, 그를 추동하는 주요 축으로서 자산화의 경제적인 축, 디지털 플랫폼의 기술적인 축을 살펴본다. 이어 자산화와 플랫폼화를 통해 진행되는 사회적 불평등 문제를 논한다. 마지막으로 검토된 기술적, 경제적, 사회문화적 논의를 종합하여 조각주체의 개념을 제안하며, 그 함의를 신자유주의 시

대 자산화와 디지털 플랫폼이 결합하는 가운데 형성되는 사회 불평등의 문제로 확장한다.

## 2. 조각투자의 다른 풍경들

이 글에서 다룰 두 개 사안은 ‘조각투자’와 ‘리셀’이다. 양자는 서로 다른 외관을 지녔지만, 이 글에서 제안할 조각주체화로서의 공통성을 지닌다. 두 어휘 모두 이론화된 개념이기보다는 기업과 시장에서 개발되었고, 대중 투자자 사이에서 사용되며 사회적으로 확산되다가 언론이나 민간기관에서 시사용어로 다루는 단계에 있다. 아직까지 제도화나 학술화는 충실히 이뤄지지 않았다. 따라서 지금의 논의에서의 사용을 위해 그 의미의 정돈 작업이 우선되어야 하겠다. 대중적 차원에서 비체계적으로 전개된 담론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연합인포맥스(2022)의 정의에 따르면 조각투자는 “하나의 자산에 대해 여러 투자자가 함께 투자하고 이익을 공동으로 배분받는 형식의 투자 기법”이다. 조각투자자는 하나의 자산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형식을 띠면서 해당 자산의 가치가 오르면 그 차익을 공동 분배한다. 조각투자의 장단점은, “소액으로 큰 규모의 자산에 투자할 기회”를 얻을 수 있지만, “해당 자산에 대한 직접 소유권을 갖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아울러 “환금성이 낮아 투자금 회수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일반적인 주식과 같이 손실 위험도 갖고 있으므로” 불안정성과 위험 부담이 무척 크다(연합인포맥스, 2022). 덧붙이자면, 그만큼 성공의 스틸과 쾌감도 크다고 말할 수 있다. 여기서 소환되는 집단은 역시 MZ세대이며 그들의 투자 대상은 “미술품, 부동산을 비롯해 음악 저작권, 명품 가방, 와인, 시계, 가상자산 등 다양한 분야”로 나열된다. 특히 코로나19 여파로 미술관, 갤러리 등이 온라인으로 이동하고 디지털 환경, 공유경제, 공동구매

에 익숙한 MZ세대가 등장하면서 주목받고 있다”고 소개된다(연합인포맥스, 2022).

한편 2022년 4월 28일 금융위원회는 <조각투자 등 신종증권 사업 관련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면서, 가이드라인 제정 목적을 발표했다. 그 목적은 “자본시장 금융투자상품의 디지털화에 대응”하여 “시장참가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투자자를 규제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되었다(자본시장연구원, 2022). 혁신과 보호라는 두 가지 가치가 어정쩡하게 제시되고 있다. 이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증권성 판단 기준 및 조각투자 적법성 확인 항목을 제공하고, 현행 법제상 적법성이 확보되는 어렵지만 혁신성과 필요성이 큰 조각투자사업은 금융규제 샌드박스로 지정받아 사업을 진행할 것(이) 권고”되고 있을 뿐이다.<sup>3)</sup> 당국의 입장을 정리하면 “제도개선 노력이 필요”하며 “관련 제도개선 사항은 현행 조각투자 관련 샌드박스 사업에 적용되는 규제면제 사항을 중심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연합인포맥스, 2022)의 식으로, 가이드 아닌 가이드만이 제시되는 상황이고, 대중적 욕망은 이 모호한 근거에서 파생되어 나날이 왕성해지는 중이다.

하나의 예로 하나금융경영연구소는 젊고 친밀한 어조로 <조각투자 이해하기>라는 온라인 자료를 발표했다. 그 주제는 “MZ세대의 신투자방법, ‘조각내서 소액으로’이다. 이 조사 자료에 따르면, 뱅카우, 카사, 뮤직카우 등의 플랫폼 투자자 중 20, 30대의 비중이 50-60%를 차지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조각투자를 “2인 이상의 투자자가 실물, 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를 분할한 청구권에 투자·거래하는 등의 신투자 형태”로 정의한다. 미술품, 골동품, 가축, 지식재산권, 부동산 등의 “고가

---

3) 그나마 적용되는 법체계도 복잡해서, “실물자산의 소유권을 분할해 취득하는 방식으로 투자가 이뤄지는 경우 일반적인 상거래로 분류돼 민·상법 적용 대상”이 되지만, “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 지분만큼 청구권을 가지는 경우는 자본시장법 적용 대상”이 된다(연합인포맥스, 2022).

의 자산”을 조각투자 플랫폼(사업자)가 매입, 운용해서 다수의 투자자들에게 “수익권 분할·판매”하는 방식을 취한다. 수익권은 “민법상 공유권, 조합지분권, 채권적 청구권”처럼 고전적인 형태에서부터 “가상자산, NFT” 등의 디지털 형태까지 포함되며, 투자금 역시 법정통화와 가상자산 형태의 지불이 가능하다.

국내 조각투자 시장은 17년 첫 소개 이후 21년도 이후 인지도가 확대된 경향이다(하나금융연구소, 2022). 플랫폼 수도 매년 조금씩 늘어 지난 5년간(2017-2022) 약 20개의 조각투자 플랫폼이 생겼고, 그중 대표적으로는 미술품(아트엔가이드, 테사), 부동산 수익권(카사, 비브릭) 등의 영역이 발달했다. 확인된 이용자수는 플랫폼 당 10만 명 - 30만여 명 정도로, 투자단위는 1천 원(테사), 5천 원(카사), 1만 원(아트엔가이드, 비브릭) 범위에 있다. 특히 MZ세대가 유망투자자 잠재집단으로 기대되는 이유는 이들이 “투자를 생활의 일부로 생각”하고 “덕업일치(좋아하는 일과 생업의 일치)”를 꿈꾸기 때문이라고 설명된다(앞의 글).

최근의 대중적인 사례로, 셀리브리티와 유명인사도 참여했고 유명 스타들을 광고 모델로 등장시킨 광고를 거리 곳곳에 배치하여 대중의 관심을 얻은 뮤직카우는 들 수 있다. 뮤직카우는 “세계 최초 음악 저작권 투자 플랫폼”으로 스스로 알리면서, 100만 명 투자자가 확보되었다고 광고하고 있다. 이 플랫폼에서는 투자 대상과 방식에서 대중성과 편리성이 강조된다.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 쉽고-꼬박꼬박’이라는 어휘들이 이를 대변한다. “3초만에 가입”하고 가입 시 “3천 원 포인트”를 받는 식으로, “누구나 쉽게 투자”할 수 있고 “음악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으로 음악 저작권에서 발생한 수익을 받을 권리!”를 부여하며, “1년에 12번 매달 월급처럼 받는 저작권료 수익”을 “Youtube, TV, 라디오, 영화, 광고, 노래방, 공연” 등 다양한 곳에서 받을 수 있다고 홍보한다. 또한 안정적인 지속성이 강조되어, “원작자 사후 70년까지 보호되는 음악저작권, 언제 팔지 고민할 음악이 아니라, 손주와도 듣고 싶은 인생 음악에 투자해보세요”라고

유혹한다(뮤직카우 홈페이지).

이 담론들에서 드러나는 주요 공통 사항은, 조각투자에 관하여 플랫폼을 활용한 기술 편이성, 작은 규모로 투자 가능하다는 대중성, 위험을 감수하는 투자 열정, 노동과 소비취향의 일치다.

한편 리셀은 외형적으로 구매와 판매이지만, 특정 대상에 대한 기대 수익을 위한 구매와 판매행위이기에 이 글에서 다루는 조각투자의 주제에 포함될 수 있다. 또한 여타 조각투자 유형에 비해 대중적인 문화소비와 직결된다는 점에서 흥미로운 사례가 된다. 리셀은 환경보호, 수익, 문화적 흥미 등의 동기에서 비롯해서 온라인 플랫폼에서 중고품을 판매하고 구매하는 이른바 “협력적 소비”의 일종인 중고품 거래(resale)와 구분된다(Kim & Kim, 2020; Slaton & Pookulangara, 2021). 이와 달리 우리가 관심을 두는 리셀은 하나의 상품, 대체로 고가의 한정 판매되는 사치품을 구매한 후 사용하지 않고 원품보다 고가의 가격으로 온라인 플랫폼 직거래로 판매하여 수익을 얻는 행위다. 표면적으로 MZ세대가 열광한다는 식으로 묘사되는 이 현상이지만 그 이면에는 네이버가 크림(KREAM) 플랫폼을, 패션기업인 무신사가 솔드아웃(SOLDOUT) 플랫폼을 운영하고 서울 주요 백화점이 리셀 판매 코너를 경영하는 식으로 세대 자본이 개입해 있다.

리셀은 당근마켓류의 국내 중고시장과 달리 전적으로 디지털 의존적 이어서 비대면적 거래 방식을 취한다. 리셀 상품의 판매자는, 특정 상품(특히 인기있는 물품은 유명 브랜드의 스피커와 핸드백 등)을 구입한 후 플랫폼에 판매상품으로 올린다. 플랫폼에는 해당 판매자에 대한 평가와 홍보 데이터가 공개되어 향후 구매를 위한 정보로 고려된다. 판매자와 구매자 간 판매가격이 타협, 결정되면, 물건이 플랫폼으로 전달되고 검수를 거쳐 구매자에게 전달된다. 만약 물건에 문제가 있다거나 판매행위에 허위 가능성이 드러나면 그에 해당하는 처벌과 보상이 진행될 정도로 플랫폼 기업의 개입이 강하다. 해당 상품의 상거래 및 소유에 복수의 행위자

가 개입하고, 짧은 시간에 상대적으로 소규모 비용으로 대상에 투자하여 수익을 창출한다는 점에서 조각투자의 응용이라고 이해된다. 요약하면, 상품이 한정판으로 제작되었다는 유한한 시간성 및 이로부터 비롯되는 상품의 희소성과 행위자들 간 경쟁성, 디지털 플랫폼과 이코머스 같은 기술 및 유통판매 체계, 그리고 브랜드 강박적인 소비문화의 형태가 결합하여 단시간의 일회적 투자가 일어나는 현상이 리셀이다.

어느 정도의 자본을 가진 이가 원상품을 구매한 후 옷돈을 붙여 판매하는 형태이므로, 아예 생활비에 쪼들리는 가난한 사람은 리셀 시장에 투자자로 진입하기 어렵다. 예를 들어, 한편으로는 30만 원의 나이키 특정 스니커즈를 230만 원으로 옷돈을 붙여 리셀을 하며 “복권처럼 짜릿”해하는 MZ세대를 그린 미디어 담론을 흔히 접할 수 있다. 리셀 시장에서 상품을 옷돈 얹어 팔면서 이들은 “가성비”를 중시하는 소비자에서 “수익률”을 따지는 투자자로 변모한다(신혜연, 2022). 반면 가난한 이가 리셀 시장에 진입하는 방식은 상품 구입이나 판매 대신, 직접 몸으로 뛰는 경로다. ‘오픈런’은 특정 상품을 판매하는 상점 앞에 개점 시간 전부터 줄을 서 있다가 문이 열리자마자 상점에 뛰어 들어가 상품을 구매하는 행위를 일컫는데, 여기엔 청바지와 백팩, 추운 날엔 담요까지 두른 젊은이들이 서 있기 일췌다. 이들 중 일부는 ‘오픈런 알바’가 포함되어 있다. 돈 없이 몸만 가진 사람이 리셀에 참여하는 방식은 오픈런 알바를 하고 수당을 받는 방법이다. 이처럼 몸으로 뛰는 노동자인 오픈런 알바 및 그들을 전문적으로 운영하는 조직, 획득된 상품을 판매하여 수익을 거두는 투자자 리셀러, 옷돈을 주고 희소상품을 구입하는 소비자, 상품의 가치 상승과 마케팅 효과를 노리는 기업들이 연동해서 리셀 시장이 운영된다.<sup>4)</sup>

조각투자의 현상들을 해외사례와 비교하거나 법적, 제도적, 산업적

4) 오픈런 알바의 현실은 저자가 강의하는 수업시간에 한 학생의 자기 경험담으로 들었다. 물론 이에 관한 언론기사나 실제 오픈런 알바들이 활동하는 커뮤니티 채팅 공간은 무수히 많다. 일례로, 이지효(2021)을 참고하시오.

논리를 정교하게 분석하는 일은 이 논문의 범위를 벗어난다. 여기에서는 이 불분명하되 흥분에 들뜬 담론 풍경에서 이후 고찰할 사항을 확인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1) MZ세대라는 속이 빈 개념으로 불리는 이들, 즉 기술과 소비에 능하지만 노동질서에 대해선 불충분 또는 불안정하거나 미진 입한 이, 혹은 가족의 부에 기대어 노동할 필요에서 여유롭게 이탈해 있는 이들이 주로 조각투자자로 호명된다는 점, 2) 조각투자는 디지털 플랫폼을 이용한 투자이고, 그 투자는 단위 1 이하의 미시 차원을 띠는 점, 3) 기술적 편리성과 쪼개기의 논리에 따른 소액성 때문에 대중적 확산에 유리하다는 점, 4) 전통적인 수집품/새로운 유행상품, 실물/가상의 경계를 아우르며, 불분명하고 막연하지만 투기 매력이 큰 부의 형태로 등장하고 있다는 점, 5) 조각투자에 필수불가결한 요소로 브랜드 주도적인 소비문화가 동반된다는 점, 6) 조명을 받는 투자자나 소유자, 그리고 그 이면의 노동자 혹은 부채자 사이에 드러나지 않는 불평등이 깊이 존재할 뿐 아니라 모순적인 공생 및 활용 관계에 있다는 점, 7) 조각투자가 말하는 혁신과 미래란, 경제적으로 불평등하고 사회적으로 불안정하며 문화적인 욕망이 과열되어 갈등과 모순으로 점철된 현재 사회의 역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현재는 미래를 위해서 희생될 시간이며, 미래는 투자의 대상으로서 효력을 가진다. 이 상황에서 시간은 늘 기회의 마감이 걸린 한정판으로서만 존재하는데 이를 결정하는 통제권력은 물론 플랫폼에 있다.

### 3. 누구나 투자자로

앞에서 묘사한 풍경은 일시적인 유행으로만 볼 수 없는, 사회경제적으로 보다 근본적인 변화를 함축한다. 그 근본적 변화란 반드시 이 글에서 집중하는 조각투자의 이름으로 나타나지 않을 수 있으며 형태는 더욱 다양해지겠지만, 조각투자의 대중화는 플랫폼 자본주의와 금융자본주의 새로

운 결합 현상(Langley & Leyshon, 2017)을 보여주는 징표로 매우 유의미하다. 이전에 단단하고 상대적으로 고정된 ‘노동’이 포디즘 사회를 계급화하고 조직하는 물질 요소였다면 현재는 금융 자본(화)이 “독립적인 초과잉”의 권력이 되었다. 즉 별난 세대가 나타나서만이 아니고, 특별히 뛰어난 상품 서비스가 개발되어서만도 아니며, 금융 지배가 노동 가치를 대체한 상황이 이 모든 변화의 근본 맥락인 것이다(Negri, 2015, p. 26). 아닌 게 아니라 “월급이 오르지 않으니”, 아예 “취직이 되지 않으니”, 빚을 내서 투자를 한다는 식의 지극히 현실적이거나 지극히 공상적인 담론들이 일상화된 현실(Martin, 2002)이다.

공공재로부터 부동산, 예술, 음원으로부터 소소한 개인 이미지까지 “거의 모든 것이 자본화”하고 “모든 것이 자산화”되고 있다(Leyshon & Thrift, 2007). 이 이행과정은 가치화의 방식<sup>5)</sup>의 플랫폼화와 핀테크(Financial Services Technology) 등 첨단 경제와 기술의 대중적 확산에 기반을 두고 있다. 그 결과 우리는 시내버스 광고판에서 “세계최초 음악저작권 투자 플랫폼 뮤직카우”<sup>6)</sup>의 “음악, 매력적인 자산이 되다”라는 카피를 일상적으로 접할 수 있으며, 좋아하는 음악을 듣는 취미는 “1년, 365일, 24시간. 언제 어디서든 재생되는 음악처럼 언제 어디서든 간편하게 사고 팔 수 있어요”라는 투자의 정신으로 바뀌었다. 이와 비슷하

---

5) 가치화는 주관적인 인식과 객관적인 조건이 사회적으로 결합되어 진행된다. 즉 하나의 사물에 절대적인 가치가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생산, 유통, 소비, 효과에 관련된 실질적인 조건이 개인과 집단의 주관적인 인식 및 평가와 만나 담론적으로 형성되기 때문이다. 물론 순수한 대중적인 감각만 작용하는 것은 아니며, 전문가와 주요 투자자 등의 핵심 집단의 “극단적으로 날카로운 감수성”에 의한 판단이 발휘하는 영향력이 크다(Chiapello, 2015; Muniesa, 2011).

6) 뮤직카우 홈페이지

[https://www.musicow.com/about/bridge\\_a?utm\\_source=GDN&utm\\_medium=SA&utm\\_campaign=echomarketing\\_new\\_signup\\_web\\_search&utm\\_content=0\\_brand&utm\\_term=%EB%AE%A4%EC%A7%81%EC%B9%B4%EC%9A%B0&gclid=CjwKCAjwnZaVBhA6EiwAVVv9DXCP6MJxxuwr0G3aiRJwY7NghtDa356hUzKhLnKfN0zI6s0j-ehWBoCowkQAvD\\_BwE](https://www.musicow.com/about/bridge_a?utm_source=GDN&utm_medium=SA&utm_campaign=echomarketing_new_signup_web_search&utm_content=0_brand&utm_term=%EB%AE%A4%EC%A7%81%EC%B9%B4%EC%9A%B0&gclid=CjwKCAjwnZaVBhA6EiwAVVv9DXCP6MJxxuwr0G3aiRJwY7NghtDa356hUzKhLnKfN0zI6s0j-ehWBoCowkQAvD_BwE)

게 과거엔 만화 <슬램덩크>를 매개로 젊은이들이 열광했던 농구 문화는 “헤이 브로(Hey Brother)”에게 “한정판 스니커즈 거래플랫폼, [KREAM]에서 에어조던1을 사고파는 가장 쉬운 방법”을<sup>7)</sup> 쉽게 알려주는 래퍼 테리(Terry)의 노래로 변모하여 네이버의 리셀 플랫폼인 크림(KREAM)으로 구현되고 있다. 삼성 금융 통합앱은 “젤리”를 모아 돈을 버는 “앱테크”를 하라고 부추기고, 걷기와 놀기 등 인간의 모든 행동이 ‘미션’이 되어 목표를 수행하면 돈을 제공하는 앱을 활용해서 아예 부정형의 ‘X’ 전부가 돈으로 환산되는 X2E(X to earn)가 홍보된다(박윤호, 2022).

이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선, 1)금융화, 자본화, 자산화를 포함하는 경제적 축 (Birch, 2017), 2)핀테크, 플랫폼, 데이터 등을 포함하는 기술적 축, 3)투자 심성과 이를 조형하는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의 사회문화 현상을 총체적으로 이해해야 한다. 예를 들어, 랭글리와 리선은 핀테크와 플랫폼 정치경제학은 불기분의 연관성을 지닌다고 설명한다. 핀테크는 “기술 주도적인 혁신적 금융 서비스”로서 플랫폼의 “재매개화, 통합, 자본화”의 요소가 균건할 때 성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너무 커서 실패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하고 거대한 플랫폼일수록 핀테크 사업에 유리하다 (Langley & Leyshon, 2021).

금융자본주의의 플랫폼화에 관한 경제사회학 논의를 배경으로 해서, 이 글에서 특히 주목하는 부분은 ‘자산화’다. “모든 것은 자산”이 될 수 있고 “누구나 투자자”가 될 수 있다는 대중적 믿음은 구체적 대상을 자산으로 만드는 사회적 과정 - 쪼개고(조각), 묶어(플랫폼화) 대중적 투자를 유도하는 조각투자 - 안에서 추진되기 때문이다.

---

7) <https://www.kream.co.kr/about/>

## 1) 경제조건: 모든 것의 자산화

조각투자라는 신조어를 체계적으로 설명하는 데 자산에 대한 인문사회학 해석이 도움을 준다. 단지 유행의 흐름으로 치부하는 대신 조각주체성의 구성을 유도하는 사회 현상으로 설명하기 위한 바탕 작업으로서, 자산 및 자산화의 개념을 살펴본다. 우선 신발에서부터 음악과 부동산에 이르기 까지 모든 것을 자산화하라는 명령이 달콤하게 쏟아지는 현실이므로, 자산(asset)이란 무엇인지 현재의 경제질서 안에서 자산이 중요하게 소환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해할 필요가 있겠다.

1908년도에 베블렌은 '자본의 본성'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자산과 자본을 구분한다. 자본이 "소유와 가치를 함축"하는 "금전적 개념"이라면, "자산"은 가치와 소유를 함축하는 "투자"와 "보상"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Veblen, 1908). 베블렌은 "자산은 자본화에 관련된 것이며 가치화의 한 형태에 해당"한다고 정리한다(Veblen, 1908, p. 121; Birch & Muniesa, 2020, pp. 7-8에서 재인용). 버치와 뮌에사에 따르면 자본은 노동 가치에서 산출되는 것으로, 고정 자본(기계), 유통자본(사물, 노동), 상품자본, 화폐자본을 포함한다. 그러나 21세기 자본주의에는 자본만으로는 설명될 수 없는 광범위성과 복잡성이 존재한다.<sup>8)</sup> 이와 달리 자산(화)은, 앞에서 담론적으로 구성되는 사회성이 내재함이 강조되었듯이, 순수 자본 외에, 회계, 문화적 은유, 정치경제적 경향성을 함축한 복합적 현상이다. 주의할 점은 대표적인 자산 형태가 부동산인 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자산이 산업적 효율성이나 생산성을 직접 산출하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자산은 "금융적 총체"로서 생산에 기여하는 물질적·비물질적 자원이다. 요컨대 자산은 "자본화된 소유물"로서 "미래 수익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하여 구성된다(Birch & Muniesa, 2020, p. 8).

---

8) 가령 버치와 뮌에사는 피케티의 21세기 자본론에는 생산 요인과 경험 요인(예: 부)이 자본이라는 개념으로 혼란스럽게 사용되었음을 지적한다.

자산은 상품과도 대비된다. 상품이 시장에서 판매, 유통, 소비되는 대상이라면 자산은 자본이 투입되고 무엇보다도 수익을 창출하는 자원이다. 상품이 일회적이라면 자산은 지속적이며, 미래에 가치가 증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간의 구속 안에 있다. 버치와 뮌iesa에 따르면 자산은 “수입의 흐름으로서 소유, 통제, 거래, 자본화될 수 있는 대상”이다. 일회적 구입(즉 소비)가 아니라 향후 수익이 이어져야 하는 “지속화된 구조”이므로, 자산은 현재 시점에서 기대·평가되는 미래 수익에 관련된다 (Birch & Muniesa, 2020; Tellmann, 2022). 예를 들어 내가 운동을 한 켄레 사서 신는다면 이는 일회적 구입이고 소비이지만, 향후에 옷돈을 붙여 판매하여 수익을 거두려는 의도에서 구매한다면 이는 투자가이고 그 운동화는 잠재적으로 자산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자산이 될 수 있음, 즉 자산화(assetization)는 “사물을 자산으로 만드는 일”을 뜻한다. 원론적으로 “무엇이나 자산이 될” 수 있다 (Boltanski & Esquerre, 2016, p. 48). 일정한 시간이 흐른 후 소유자에게 축적 자본의 기회를 제공하는 한 자산이 될 수 있으며, 1) 대상의 이전가능성, 2) 개별적 거래실행성, 3) 자산에 대한 가치 평가 도구만 존재한다면 자산으로 기능할 수 있다(앞의 글). 이처럼 자산화는 그것으로부터 창출될 가치에 관한 법적, 제도적, 기술적, 경제적, 지식과 인식에 관련된 행위가 개입되는 복잡한 과정으로서, 일련의 과정과 네트워크를 통해 “자산이 구성”되고(Birch & Muniesa, 2020) “가치 관리”(Tellmann, 2022)가 이뤄진다. 또한 개인의 선택에 의존하는 상품 구매와 달리 자산은 “물질, 하부구조, 정치, 법, 도덕”의 형태로 특정 기간 지켜야 하는 책무를 발생시킨다. 이를테면 소비에서 어떤 신발을 사라고 규칙화할 수는 없지만, 같은 운동화라도 자산으로 간주된다면 개인의 주관에 따라 마음껏 할 수 없도록 구입과 판매 등에 복잡한 규칙이 개입한다. 다시 말해 자산화는 “사물이 자산으로 전환되는 현상”을 가리키되, 한 대상이 자산으로 되기까지 “사회적으로 변형되는 특징”이 중요하다(Birch & Muniesa, 2020). 어

떻게 하나의 운동화가 때로는 소비상품로 때로는 자산으로 간주될 수 있는가? 즉 자산화는 경제적일 뿐만 아니라 지극히 사회적이고 담론적으로 형성, 인정, 관리, 실행된다(Birch, 2017, p. 462).

나이가 자산 혹은 자산화는 금융(화)과도 구분되는 개념이다. 금융화는 주식 가치, 금융규제, 자산유동화(securitization) 및 이들에 관한 문화적 변용과 주체성 등을 모두 포함하며 여기엔 자산화도 관련된다. 그러나 자산화가 금융화와 뚜렷이 구분되는 이유는, 자산화는 “사물을 자산으로 만듦(turning things into assets)”(Birch & Muniesa, 2020)의 과정을 함축하기 때문이다. 자산에는 실제적·가상적 사물의 구체성과 특수성이 반드시 존재한다. 이에 비해 금융화는 추상화된 영역에 가깝다. 금융 전문가가 주요 행위자인 금융 영역과 달리 자산 영역은 문화적이고 사회적인 대중성과 긴밀하게 호흡한다.

오늘날 자산 및 자산화는 금융자본주의의 사회적 현상을 설명하는 주요 요소로 작동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자산은 부동산으로 대표되었지만 오늘날은 공공재, 교육, 주택을 포함해서 거의 모든 것에 대해 자산화의 가능성이 개척되고 있기 때문이며, 실제로 자산화는 “금융화의 전위”에서 수익 창출을 위한 거래를 형성하는 주요한 영역으로 기능하고 있다(Tellmann, 2022, pp. 33-34).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운동화가 돈을 벌어들여 주는 자산이 된다고는 상상도 못했지만, 지금은 젊은 세대들에게 리셀 상품으로 가장 인기가 높은 운동화는 - 더 정확히 말한다면 특정 브랜드의 특정 에디션의 스니커즈 상품은 - 구입해서 착용하는 대신 투자하고 구매해야 할 대상으로 자산화되었으며, 이에 대한 법적, 제도적, 경제적, 사회문화적 절차와 과정이 복잡하게 개입된다. 자산의 가치평가에 대한 구별과 위계화가 진행되면서 “자산화의 정치”(Tellmann, 2022)가 유발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요약하면 자산 및 자산화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Birch & Muniesa, 2020). 첫째 자산은 법적 구성물로서 소유와 통제에 관련된 권리가 법에

의해 부여된다(돈만 있으면 누구나 구입하여 소유 가능한 상품과 구분되는 지점이다). 둘째, 자산은 소유와 통제에 관한 고유한 “양식”이 정립되어 있다(옷을 어떻게 구입하라는 규칙은 없지만, 지식, 정보, 데이터 등의 자산에 대해서는 매매 행위가 정해진 규칙을 따라야 한다). 셋째, 자산에는 고유한 자산 특정성(asset specificity)이 있다. 따라서 자산은 임의로 재생산할 수 없다(예술작품에 대한 모작은 그 형태가 아무리 유사하더라도 동일한 인정을 받지 못하는 원리다). 넷째, 고유성과 독점성 원칙에 의해, 자산은 차별화된 공급 및 수요 논리를 따른다(예를 들면 미술작품에서처럼 자산의 가격이 올랐다고 해서 새로운 생산자나 창작자가 개입하여 자산의 가격을 낮추는 일은 불가능하다). 다섯째, 자산 가치에 대한 투자에 대해 현재 기준 미래에 그 보상액이 하향화될 수 있다(자산 기반한 경제에서 주택 가격 하락이 경제위기로 이어지는 현상이 그 사례다). 여섯째, 자산 가치는 영속적이지 않으며 가변적인데, 이는 자산 소유자들의 행위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자산 가치는 그 사회적, 담론적, 물적 차원과 이용에 따라 변동한다(줄곧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며 때론 위기에 던져지곤 하는 한국 부동산 시장의 문제를 상기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자산 가치와 가치화 과정은 역동적이다. 자산 가치는 다양한 금융적, 기술과학적, 정치적, 사회적 행위 요인들로 이뤄진 생태시스템에서 구현되기 때문이다(Birch & Muniesa, 2020, pp. 6-7).

이처럼 자산화가 소비와 달리 미래의 수익을 염두에 둔 지속적 구조이며, 금융에 비해 사회-제도-법-경제-담론적 복합적 구성체로서 강조되고, 자본과 달리 대중의 삶 속에서 인간의 기대, 욕망, 필요를 내포하며, (부동산과 건물에서부터 가방과 신발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인 대상으로 현존한다는 사실에서 조각투자라는 주체를 살피는 본 작업에 적합하다. 아울러 글로벌 금융이 종종 “허구적 자본”(Durand, 2017: Birch & Muniesa, 2020에서 재인용)에 의해 통치된다는 지적을 상기할 때, 자산 영역에 대한 비판적-구성론적 접근이 필요한 이유를 알 수 있다. 실

계 문화연구, 문화경제, 문화정치경제학에서 자산 및 자산화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 중이며, 조각투자와 조각주체를 분석 대상으로 삼는 본 연구 역시 그 맥락에 자리한다(Birch & Muniesa, 2020, pp. 11-12).

실로 현재 우리 삶에서는 모든 것이 자산화될 수 있고 실제 자산화되어가고 있다. 땅, 기술, 경험, 화폐, 육체와 인지적 기능과 정동적 특성, 삶의 형태, 지식과 정보 모든 것이 자산 형식을 띠고 자산으로 가동되고 있다(Birch & Muniesa, 2020, p. 2). 모든 것의 자산화 경향은 특히 비트코인, NTF 등의 금융기술 및 디지털 플랫폼과 결합하며 대중의 일상에서 더욱 광범하고 왕성하며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Zauch & Agur, 2022). 그러나 그 빠른 발달 속도와 대비되는 측면으로 전문적이고 정확한 지식은 상대적으로 부족하여, 자산은 첨단 신기술에 관한 신조어들로 포화된 채 경제적 회색 지대 안에서 빠르게 생성되고 크고 작은 대중의 실행 흐름으로 확산되고 있다. 물론 자산에 관한 개인의 알뜰하고 부지런한 경제 활동이 현실적 문제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문제는 정확한 정보나 분석이 없이 이러저러한 조각들에 대한 투자로 “강남 부자가 될 수 있다”는 말들이 일상화된 담론적 현실에 있다. 이처럼 모호하고 허황된 상황에서 성공에 대한 때로는 과잉된 필요와 열망, 나름의 경제적 합리성과 전략, 유행과 시세에 민감한 흥분과 열정에 의해 자산화는 집요하게 추진된다(Konings, Adkins, McKenzie, & Woodman, 2022). 많은 경우 실패와 좌절로 귀결되는 이 강렬한 정동 - 이성 - 지식 - 기술적 집체의 현실은 “빛투(빛을 내어 투자하다)”, “영끌(영혼을 다해 끌어모은다)”같은 극단적인 신조어들로 고스란히 드러난다. 이런 시도들이 부를 민주화한다는 견해도 있지만, 이보다는 기대와 실제의 차이, 가치 상승과 가치 하락의 불안정성, 애초에 존재하는 사회적 격차 때문에 사회적 갈등과 불평등이 더욱 악화하는 현상이 더욱 중요할 것이다(Konings et al., 2022). 가진 자들이 발 빠르게 주도하는 흐름을 따르다가 ‘빛투개미’

들이 '지옥'에 빠졌다는 식의, 우리가 일상적으로 듣고 말하는 극단적인 표현은 '모든 것의 자산화' 흐름에 투신하는 주체들의 위태로운 운명을 함축한다.

## 2) 기술조건: 플랫폼 지배

현대 자본주의가 '기술과학 자본주의(technoscientific capitalism)'라는 점은 이미 1984년, 프랑스 철학자 장 프랑수아 리오타르에 의해 지적된 바 있다(Birch & Muniesa, 2020에서 재인용). 버치와 뮌िए사가 주장했듯이, 자본주의는 "혁신 기반 본성(innovation-based nature)" 때문에 기술과학과 연동하고, 기술과학 자본주의는 미래의 성공에 관한 "약속 합리성"을 매개로 해서 투기 논리와 연합한다(Birch & Muniesa, 2020, p. 1).

특히 플랫폼은 금융화, 자본화, 자산화의 급격한 발전에 커다란 영향을 미쳐왔다. 오늘날 플랫폼 없는 금융자본주의란 불가능할 정도다. 보통 우리는 플랫폼으로 콘텐츠 소비를 하는 OTT(Over-the-top) 플랫폼이나 배달 플랫폼 등을 상상하지만 금융자본주의 관점에서 플랫폼의 영역은 훨씬 더 넓다. 특히 디지털 노동뿐 아니라 자산화와 이에 연관된 투자의 맥락 안에서 그 의미는 더 확대될 필요가 있다.

현재 자본주의 맥락에서 플랫폼은 "사회기술 및 자본주의적 비즈니스 실행 항목들을 특정한 방식으로 조합한, 독립적이고 역동적인 배열체"로 정의된다(Langley & Leyshon, 2017). 플랫폼은 "벤처 자본 투자의 구조"로 기능한다. 왜냐하면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은 "가치화와 자본화 과정에 중요한, 새로운 기업 형식을 구현"하며, "디지털 경제 활동에서 미래 수익 창출을 목표로 취하면서 현재의 부채를 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노동이 아닌) 투자의 관점에서 볼 때 플랫폼은 투자자들이 네트워크 효과에 기대어 "미래 지향적인 가치화와 자본화"를 예상하고 이에 합류하도록 이끈다(Langley & Leyshon, 2017, pp.

13-14).

역사적으로 어느 자본주의 단계에서나 투자가 이뤄지는 공간으로서 플랫폼은 필수적으로 존재했다. 1) 주식거래소같은 물리적인 매개체 2) 광고 기반한 미디어 3) 크레딧 카드나 직불 카드 등의 거래 시스템 등이 전통적인 플랫폼의 유형이라면, 현재의 ‘소프트웨어 플랫폼’은 이전의 플랫폼들과 형태와 기능면에서 뚜렷하게 구분된다. 물리적인 한계를 넘어 무수한 참여자와 이해관계자들을 연결하는 기본적인 속성에 덧붙여, 네트워크 효과에 동반되는 “이용자 간 가치 공동 창출”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이전의 플랫폼들과 근본적인 차별성을 지닌다(Langley & Leyshon, 2017, p. 15).

자산과 플랫폼이 결합된 사회적 효과에 대한 비판적 연구 사례로 맥켄지의 작업을 참고할 수 있다(McKenzie, 2022). 플랫폼은 단지 개별 사물이나 콘텐츠를 전시판매하는 공간이 아니며 신체와 정동 작용, 삶의 양식과 주체성까지 모든 것을 자산화한 후 디지털 재매개한다. 이 맥락에서 맥켄지는 구인/구직 포트폴리오 플랫폼(예: Microwork/Clickwork, Matchmaking 등)에 주목하며, 미셸 푸코 개념인 “인간 자본(human capital)”이 “미시자산(micro-asset)”으로 변형되는 현상을 분석한다. 그는 이용자들 사이에서 노동관계를 매개하는 이른바 크라우드소싱(crowdsourcing) 플랫폼에 관심을 두는데, 이 환경에서 이미 인간자본인 노동자들이 기업의 입장에서 투자의 대상으로 자산화되는 경향을 발견한다. 더욱이 노동의 수요공급 유형이 특정 영역으로 집중하면서 자산화된 인간 자본은 고도로 파편화된다. 즉 한 기업이 어느 인간자본을 취득하는 일이란, 노동자 고용으로서가 아니라 유능한 대상을 확보함으로써 향후 수익을 가져다 줄 자산을 취득하는 일로서 의미있다. 특히 맥켄지는 “미시자산” 개념을 제안하며, 플랫폼에서 인간 자본이 더욱 미시적으로 파편화되며 데이터 자산으로 환원되어, 거대 플랫폼에 의해 잠금 통제된다고 지적한다. 인간의 미시자산화는 개인의 역량, 노동조건, 그에

대한 평가등급의 항목들이 플랫폼에 적합한 형태로 세분화, 정련화, 데이터화되며 나타나는 현상이다. 한편으로 포트폴리오 플랫폼은 노동자들에게 (사용자의) 평가점수, 고객과의 계약, 매개 지급 등에 관한 “비이동적인 자산”을 부여하고, 그들의 성취, 기술, 능력 등의 항목에 대해 “등급화된 피투자자(rated investee)”(Feher, 2018)로 관리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포트폴리오 플랫폼에서 구직자들은 여전히 독립적인 계약을 하는 자영업자(self-employed)로 간주된다. 요컨대 플랫폼에 감금된 노동자들은 동시에 일종의 “개인 자산 관리자(private asset managers)”가 되어 미시자산화된 자신의 역량을 포트폴리오에 **종속시키고** 관리하는, 스스로 물고 물리는 모순된 존재가 된다(McKenzie, 2022, p. 100). 거대 플랫폼은 개인 노동자 혹은 자영업자의 비이동성, 파편성, 불확실성을 한꺼번에 통제하며, 미래 수익을 낚을 가능성을 조건화하는 거대 권력을 발휘한다.

맥켄지의 연구와 유사한 현상은 한국 사회에서도 흔히 볼 수 있다. 아래의 이미지는 ‘잡코리아’ 플랫폼에 제시된 국내 IT분야 인력 모집 광고이다. 일반인들은 거의 이해하기 어려운 세부 능력 요건들이 미세하게 나열되어 있을 뿐 아니라, ‘매너, 성실, 협력, 신뢰, 효율성’ 등의 태도 평가 차원까지 덧붙여져 있다. 이 현상은 인간자본이 미시자산으로 환원되는 경로 그 자체를 현시한다. 아울러 잡코리아 이력서가 이미 있다면 지원 작업이 30초 안에 마무리될 수 있다는 메시지는, 이미 기등록된 자가 떠나기 어렵도록 만들고 미등록된 자는 그 역시 자신을 미시자산화하여 합류하도록 유인하는 담론적, 기술적 잠금장치다. 합일된 인간의 자기 구현이자 해방으로서 여겨지던 노동의 이상과는 정반대로 모든 것, 인간 주체 자신도 미시자산으로 파편화되고, 이어 주체가 그 자신을 투자 대상으로 관리하고 매매하는 자산관리자가 되도록 한다.



그림 1. 잡코리아의 IT 분야 채용 광고 사례 (2022년 6월 26일 기준)

#### 4. 부자사회의 불평등

우리는 차차 자산화의 기술경제적 원리에서 사회정치적 함의의 영역으로 들어서게 되었다. 모든 것이 자산화되는 사회에서 인간 주체와 사회는 어떤 삶을 살게 되며, 과연 무엇이 되어 가고 있을까? 인간의 사물화가 비판되었던 이전 세기 자본주의에 비해 인간을 포함한 모든 사물이 자산화 되는 지금의 자본주의는 과연 어떤 경제적 그리고 정치윤리적인 가치를 성취하고 있는가? 과연 이 부를 향한 물결 안에서 우리 더 풍요로우며 골고루 행복한가?

뤽 볼탕스키와 에르노 에스케르는 탈산업사회에서 (산업사회에서처럼 노동에 의한 가치 창출이 아니라) 사물 자체가 부를 창출하고 소비로 확장되는 경로를 “사물의 경제적 삶”이라고 부른다(Boltanski & Esquerre, 2016). 그들이 주목하는 사물의 경제적 삶이란 “부자화(enrichment)”를 도모하는 “부자경제(enrichment economy)”를 비판하기 위한 개념이다. 이 개념은 모든 것이 자산화되는 사회의 불평등 현상을 검토하는 데 유의미한 통찰을 전해준다.

사물이 경제화되어 부로 축적되는 부자사회에서는 그 이전 단계의 사회에서처럼 인간과 사물이 구별되지 않는다. 고가의 인간과 사물이 하나의 부의 “평면(plane)”에 존재하며, 이들 간 결합이 재설계되고 재유통되면서 더욱 큰 부가 창출된다. 볼탕스키와 에스퀘르는 부자경제의 형성 요인으로 첫째, 탈산업사회에서 노동영역이 빈곤 국가로 이전하면서 부유한 국가에서는 노동경제에 비해 소비경제가 과잉 발달한 요인을 제시한다. 이 흐름에서 노동에 근거한 산업 영역 대신 소비문화와 시장경제에서 각광받는 고가의 사물이 화폐와 동일시되는 가치를 창출하게 되었다. 둘째, 이에 금융 및 디지털 경제의 고도화가 결합하면서 소비가 더욱 왕성해지고 상품의 가치화 역시 가속적으로 강화된다(Boltanski & Esquerre, 2019). 예를 들어 저자들은 부 창출에 기여한다고 가치화된 사물군에 대해 “차별화 X 시간성”의 축을 교차시켜 사분면을 구성한다. 이를 구성하는 각 영역은 1) 고가의 표준화된 산업화 상품들(고급 자동차 등) 2) 수집품(예술품 등) 3) 자산(부동산, 건축물 등)이 있고, 이후 별도 추가 연구에서 저자들은 4) 유행상품(현대 소비문화 유행상품 등)을 추가했다(Boltanski & Esquerre, 2019).

부자경제에서 수익은 (노동에서 가치가 산출되는 산업 질서와 달리) 사물 상품에서 나오므로 고가의 사물 거래로 수익을 최대화하려는 노력은 계속된다. 희소한 상품은 부자에게로 집중되는 동시에 보다 다양한 상품군들이 유연하고 빠르게 유통되며(특히 유행상품의 경우), 빠른 유행 흐름 안에서 다양성 자체가 가치화된다. 생산-유통-소비로 이뤄지는 사물의 경제적 삶은 “철저하게 소비 가능한 금융의 흐름(나의 강조)”이기에 “자본-상품-금융” 간 일종의 “내밀한 연대”가 구성된다(Boltanski & Esquerre, 2019, pp. 74-75). 이는 순수 추상적인 금융이 아니라, 소비와 상품의 과정에서 구체적인 사물이 자산화되어 매개되는 연대다. 부자경제는 부자 고유의 “경제적인 법칙”을 따르며 그들에게 특별한 가치를 부여하고 그들의 고가를 지지하는 “이례적 사물”만을 옹호하기에, 부를

창출하는 사물과 보통 사물들 사이의 “경계를 유지”하는 일이 중요해진다 (Boltanski & Esquerre, 2019, p. 76). 부자사회에서 인간의 활동은 노동이 아니라 “욕망과 열정”의 “표현”이라고 간주된다. 이에 상응하여 부자사회에서 사회적 불평등 역시 고가치 사물들에 관한 자본-상품-금융의 순환작용을 통해 구성된다(Boltanski & Esquerre, 2016, p. 54). 그 제작에 투입된 노동자의 노동과 무관하게 고가 브랜드의 상품으로 매매되며 그것을 착용한 셀리브리티의 인기에 힘입어 더욱 가치가 상승하는 귀금속 사례를 상기할 수 있다. 더불어 조각투자에서 인기있는 대상이 불탄스키와 에스퀘르가 제시한 고가치 사물들과 대부분 겹친다는 점에서, 오늘날 이 자산들에 대해 집요하게 추진되는 구매와 투자 열정의 정체를 이해할 수 있다.

부자경제뿐 아니라 “자산 경제” 전반은 사회 불평등을 새로운 논리로 심화시킨다(Adkins, Cooper, & Konings, 2022). 오늘날 주택은 단순한 “소유”가 아니라 “자산”으로서 의미를 지닌다. 주택 자산에 대한 소유권 확보 여부에 따라 권력이 불평등하게 배치되는 “소유권 사회(ownership society)”가 구성되고 있다. 이는 신자유주의 조건 안에서 새로운 계급화 및 불평등 형성 논리로 더욱 강화되고 있다. 자산 가격이 임금이나 인플레이션보다 더 빠르게 상승하는 상황에서 고용에 준거한 계급질서 영향력은 예전보다 약화되었으며 그 대신에 자산 확보가 불평등을 구조화하고 배치하는 요인으로 더욱 주효해지고 있다(앞의 글). 더욱이 플랫폼 자본주의(Srnicek, 2016) 체제에서는 첨단 사회-기술적 장치들과 결합한 금융 질서를 잘 파악하고 이에 합류해서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자산 관리 및 증식을 실행할 줄 아는 지식과 물적 여건 확보가 필수적인데, 그 확보 능력은 기존의 사회 상층부 거주민들에게 더욱 이미 유리하게 배치되어 있다(앞의 글).

코닝스와 동료 저자들은 기 스탠딩의 불안정한 신빈곤층을 가리키는 개념인 ‘프레카리아트’와 지대를 확보한 ‘임대소득자(rentier)’간 계급의

차이는 금융같은 유동성 차원이 아니라 그보다 “보다 두텁고 투박한 (clunkier)” 물리적 자산 소유의 유무에서 기인한다고 주장한다(Adkins et al., 2022).<sup>9)</sup> 주택, 부동산, 그 외 다양한 소유를 확보한 가구가 자산 투자를 할 때 더욱 큰 부를 일굴 수 있는 반면에 애초에 그 진입을 위한 기초 자산을 갖추지 못한 계급은 자산 경제 질서 자체에서 퇴출되어 사회 빈곤층으로 추락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자산 주도적인 생애 (asset-driven lifetimes)”가 여러 세대를 거치며 누적될 때, 부에 대한 접근의 양식은 ‘세대 간’ 질서로 차등 강화되며, 이 모든 운명은 해당 가구가 자산을 확보했는가의 문제로 수렴된다. 간단히 말해서 “부모가 자녀에게 돈을 주어 주택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할 의지와 능력”을 지녔는가에 따라 자녀의 미래는 결정된다(Adkins et al., 2022).

삶에서 현재는 “부패하고 쇠퇴하는 상품의 시간”으로, 미래는 “미래 지향적인 투기의 시간”으로 분리·변질된다. 그리고 우리는 (자산을 둘러싼) “게임에 강요된 참여”를 하게 된다(Adkins et al., 2022, p. 26). 그러나 게임의 결과는 과거의 빛에 의해 “이미 결정되어 미리 통제 (preempted)”되고, 삶은 그저 “견디는 시간”(Baraitser, 2017: 앞의 글, p. 26에서 재인용)으로 살아질 뿐이다. 생존과 빛, 허망한 미래를 향한 게임을 견디는 과정에서 형성되는 주체가 다음의 절에서 논의될 조각 주체다.

## 5. 조각주체

이 흥분되고 고된 경로 - 자산으로의 투신 - 를 거쳐 형성되는 주체를 조각주체로 개념화하고자 한다. 조각주체는 ‘조각’이라는 어휘상 근대 산

---

9) 건물이든 운동화든 자기 자신이든 가상적인 금융과 달리 물질적 실체를 지녔다. 물론 NTF 등의 가상 자본이 부상하고 있지만 이는 별도로 논의되어야 할 새로운 기술과 학 자본주의 유형이다).

업사회 환경에서 해석된, 마비, 산만, 파편화된 주체(Benjamin, 2006)와 유사해 보일 수 있지만, 정교한 열정과 합리성(Hirshman, 1977/1994), 무엇보다도 경제로 정향된 신자유주의-금융자본주의-플랫폼자본주의의 적극적 산물이라는 점에서 이전 산업화 시대의 노동자 주체와 구분된다. 또한 현재 조각주체의 내면은 이전 세기의 근대적 주체처럼 분열되었지만 수동적이거나 억압된 주체는 아니다. 그의 지식과 행동은 플랫폼 권력에 의해 고도로 정련·동시화되고 이 바탕 위에서 자신이 투자라는 적극적 행위를 결정, 실행하며 자기 통치한다는 점(Foucault, 2008)에 조각주체의 특성이 있다.

요컨대 조각주체는 기술적 플랫폼화와 자산화가 주도하는 금융자본주의의 조건에서 탄생한 플랫폼 호모 이코노미쿠스의 한 유형이다. 플랫폼 호모 이코노미쿠스는 기술적 혁신에 대한 민감한 반응, 성공과 수익에 대한 집요한 열정, 소비 유행에 대한 욕망에 바탕을 두어 경제적으로 정향화된 존재다. 그 규모와 방식은 다양하겠지만 이 글에서는 조각의 규모와 방식으로 투자를 하는 조각주체에 주목했다. 조각주체는 데이터화된 미세한 형태로 존재하고, 미시적인 행위와 결과로 산출되며, 흥분과 두려움의 모순 속에서 조각난 정동을 지니는 존재다. 경제, 시간성, 문화와 정동, 사회의 차원에서 공통적으로 미시화되어 나타나는 조각주체의 구체적 특징은 다음과 같다.

우선 경제적인 차원에서, 조각주체는 디지털 조건에서 생성된 플랫폼 호모 이코노미쿠스의 한 유형이다. 미셸 푸코는 18세기 자유주의 맥락에서 형성된 호모 이코노미쿠스의 성격을 설명하면서, 그를 법의 영역에서의 권리의 주체(subject of right)와 구별되며 그와 “변증법적”으로 연결된 “이익의 주체(subject of interest)로 설명한다(Foucault, 2008). 이익의 주체란, 그 자신이 “이익의 원천으로서, 이익의 시작점으로서, 이익들의 메커니즘의 공간”으로 존재하며, 이때 이익은 다른 것으로의 대체나 다른 누구에게로의 양보가 되지 않는 것, 즉 전적으로 “주체

의지”로 간주된다. 그의 행동은 자신의 이익 강화를 위해 다양화되고 그 행위들은 이익 창출의 가치에서 의미가 확보된다. 이익의 주체는 기업가로서, 자본으로서, 자기 자신의 생산자로서, 그리고 수익의 원천으로 존재한다(앞의 책, p. 226). 그 자신이 역량에 따라 관리 운영되는 인간자본이 되는 것이다. 인간자본은 “역량-기계(ability-machine)”로서, 슈페터가 “자본주의의 윤리적-경제적-심리적 특성”의 주요소로서 설명한 “혁신”을 위한 투자 대상이 된다(앞의 책, p. 276).

지금의 디지털 ‘노동자’가 아닌 디지털 ‘투자자’로서 조각주체에 연관되는 특성으로, 푸코는 이익의 주체가 생존이 아니라 이익 획득을 의도한다고 해석한다(Foucault, 2008, p. 273). 조각주체는 노동하는 시민이 원하는 생존의 권리를 넘어서 투자의 주체다. 그가 원하는 것은 생존 대신 수익이며, 필요에 대한 권리 대신 증가하는 이익을 향한 열정과 전략이 핵심적이다. 무엇보다도 이익을 얻기 위해 노동을 하는 교환원리를 따르는 대신 시간의 흐름에 증가하는, 자산에 대한 추가 이익을 도모한다. 물론 자산 관리와 운용을 위한 플랫폼 이용을 위해 최소한의 디지털 활동을 하지 않을 수 없지만, 그 활동은 교환원리에 따르지 않고 자산에 부여된 차액의 수익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노동이 아니라 투자다. 요컨대 조각주체는 이익의 주체다. 이 점이 생존을 유지하기 위해 노동하는 주체와 차별화되는 지점이다. 그는 단지 생존을 위한 생계비 마련이 아니라, 더 많이 얻고 더 크게 축적하기 위해 계산하고 쪼개고 투기한다. 더욱이 조각투자의 대상이 필요가 아닌 취향 욕망에 따라 구입하는 사치품이라는 사실을 상기하자. 생존을 위한 구입이 아닌 것이다. 그가 현실적으로 곤궁한데 빚을 내서 투자할 수도 있고, 부유한 상태에서 여윌돈으로 투자할 수 있지만, 어떤 식으로든 울퉁불퉁하고 불균형적인 조건에서 무언가 둔탁한 덩어리 실체는 이익에 대한 희망이나 기대의 대상으로서 의미있다. 자산이 되는 것이다. 즉 실제로는 불평등 질서 안의 서로 다른 위치에 있는 존재들이지만 이들이 보편적인 수익 기대 전략 체계에 포섭될 때 조형

되는 주체가 플랫폼 호모 이코노미쿠스다. 데이터화된 조각의 미시성과 거대 플랫폼의 보편성은 이를 지지하는 기술경제적 구조다.

둘째, 시간성의 차원에서 자산은 미래 수익에 대한 기대를 바탕으로 진행되므로 고유한 시간성이 내재한다는 점을 확인했다. 애초에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 체제의 시간성은 비균질하고 모순적이다. 우선 기술적으로 고도 자동화된 시간은 가속화한다. 현재라는 시간은 극미세하게 파편화하며 빠르게 움직여서 현재적 경험이나 과거적 기억으로 형성될 틈조차 없다. 과거와 현재의 경험과 기억이 빈곤할수록 미래라는 시간에 대한 절박함은 커진다. 동시에 미래는 대비하고 투자해야 할 대상으로 무한히 팽창한다. 투자라는 논리로 팽창한 미래는 급기야 현재를 잡아먹는다. 라짜라토(Lazzarato, 2012)의 “부채인간”론에 의하면 신자유주의의 상황에서 아직 오지 않은 시간, 즉 미래는 혁신의 가능성으로 가치화되어 효용이 산출된다. 마침내 미래가 현재를 “선제”(Lazzarato, 2012)하는 식으로 시간의 질서는 뒤집어진다. 미래에 이르지 못한 수익을 거두기 위해, 더욱 심각하게는 현재 던져 놓은 투자액에 대한 빚을 갚기 위해, 지금을 생존하는 방식이 이미 결정된다. 현재는 언제나 다른 곳에 있는 “금융 적합성(fitness)”(Martin, 2002, p. 91)에 맞추어 교정될 것이 요구된다.

향후 수익을 기대하고 미래를 현재로 당겨올 때, 그리고 그 미래의 환상이 현재의 현실을 집어삼킬 때, 항상 현재는 소실되고 미래가 그 자리를 대체하므로 시간의 가속화는 더욱 빨라진다. 이 같은 가속화는 주체에게 있어 사물, 노동, 자기로부터의 소외에 이어, 시간으로부터 소외를 낳는다. 하르트문트 로자(2013/2020)에 의하면, 현대사회에서 시간의 가속화는 일종의 전체주의로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다. 로자는 소외를 “진정 원하지 않는 것을 하도록 만듦”이라는 형태로 설명하며, 어떤 시점에도 고유한 지금의 시간으로 살지 못하게 강제되는 시간의 가속화 체제에서 소외는 더욱 심화된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진정 원하는지 여부

를 알지 못한 채 혹은 아예 미처 생각조차 하지 못한 채 유행으로 ‘뜨는’ 금융상품에 투자하고 조각자산 투자에 참여하며 이 상황에서 발생한 빚을 갚기 위해서나 약간의 수익을 계산하기 위해 뛰어들면서 모든 가능성과 희망을 미래의 플랫폼의 보장없는 마법에 의존하는 상황 같은 것이다. 이로써 투자로 재구성된 시간성은 주체의 모든 삶(과거, 현재, 미래)을 장악하고 그는 이 뒤바뀐 시간 안에서 소외된다.

다른 한편에서는 탈가속화 경향이 진단되기도 한다. 경제학자 아론 베나나브(2020)는 <자동화와 노동의 미래>에서 자동화 시스템이 노동의 일자리를 대체한다는 견해를 비판한다. 문제는 전 지구적인 과잉 생산 조건에서 값싼 노동력이 제공되는 국가로 공장은 이전했으며, 선진국가들에서 생산성 저하에 의해 노동 수요가 감소하는 정체 상황에서 비롯된다. 다시 말해 경제 및 사회 성장의 탈가속화(de-acceleration)는 심화되고 있다. 그 결과 글로벌 차원과 지역 사회 내에서 경제적 양극화와 불평등이 역시 악화된다.

이렇듯 기술적 가속화와 사회적 탈가속화가 병존하고 있다. 지금의 시간은 전적으로 가속화되거나 탈가속화되지 않으며, “초가속화”(김대식 외, 2020)<sup>10)</sup> 되는 것만도 절대 아니며, 영역마다 집단마다 이질적이고 불균질한 시간성들이 혼란스럽게 섞여 결합하거나 경합한다. 가속화이든, 탈가속화이든, 초가속화이든, 아니면 이 모든 것의 중첩과 분절이든 이 논의들이 시사하는 바는 우리가 처한 시간성은 조화롭지 않으며 충돌과 모순의 불연속이라는 점이다. 영역마다 개체마다 상이한 시간 질서를 살아가는 사회는 심각한 갈등과 불행에 처하기 쉽다. 예를 들어 거대 기술

---

10) 심지어 2020년부터 지속된 팬데믹 상황은 단순한 가속화가 아닌 “초가속화”가 전 개되는 것으로 진단되기도 한다. 관점에서 따라 초가속은 팬데믹에 시달리는 현재보다 더 개선된 정치와 경제와 경영을 매우 빠르게 추진할 것이라 예상되기도 하지만(김대식·김동재·장덕진·주경철·함준호, 2020), 이전의 가속화에 대한 사유들을 상기한다면 초가속이 전적으로 긍정적인 수 없으며 인간의 존재와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논쟁적이다.

상품 및 플랫폼 기업은 가속적으로 확장하고 새로운 투자상품은 빠르게 개발되겠지만, 그의 노동과 삶에 대한 기회와 보상은 무한 유예되며 침해되고 있다. 이런 가속화/탈가속화의 충돌 안에서 대중 주체의 삶은 소외되지만, 수익에 관한 허황된 욕망은 그들 모두를 뒤덮으며 매우 빠르게 과잉 팽창한다.

셋째, 조각주체의 내면에 관한 해석과 표현의 문화적인 차원에서, 자신의 생기를 발휘하고자 하는 정동적 측면과 이를 억제하고 통제하는 신자유주의적 경제사회질서가 주체의 삶에서 충돌하면서 이 갈등과 혼란이 어떤 문화적 양식으로 표현되는지를 관찰할 수 있다. 불균질한 시간성과 사회적 불평등 조건 안에서 우리가 “조각”으로 묘사한 주체화가 이뤄진다. 주체의 조각이란 내파된 내면의 파편화를 가리킨다. 자유와 소외, 자율과 종속, 쾌락과 고통이 혼합하며 무수한 조각들을 만든다.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 체제에서 자유와 자율과 쾌락의 표면에서 역설적으로 강화되는 소외, 종속, 고통의 본질에 대해 프랑스의 경제철학자인 프레데릭 로르동은 “의지적 자본 노예(willing slaves of capital)”이라고 부른다. 의지적 자본 노예는 끊임없이 모순적이다. 그는 “즐거운 자동체(auto-mobiles)”이기도 하지만 본질적으로 노예로 구속된다는 점에서 비극적이다. 한편으로 자본주의라는 “욕망체제”는 쾌락 정동(joyful affects)을 발동시키며, 이는 오로지 “잉여 창출”을 향하는 욕망들로 파생된다(Lordon, 2014, p. 68). 주체는 노예화된 수익 증대에 대한 욕망을 자발적으로 충실하게 따름으로써 자본주의 지배력 강화를 위해 더 봉사하게 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이 즐거운 자동체란, 로르동이 스피노자를 인용하여 주장하듯이, “자신은 자유롭다고 믿도록 속고 있는 상태”에 불과하다. 왜냐하면 그는 주어진 대로 행동하는 데 부지런할 따름이며 “그들이 그렇게 하도록 결정된 요인에 대해서는 무지”하기 때문이다. 그는 자신이 자유롭다는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자신이 진정한 근원이라고 생각하며 이 “위조된 투명성” 안에서 자본주의 욕망체제에 적극 봉사할 따름이다(Lordon, 2014, pp.

55-56).

조각주체는 로르동이 말하는 의지적 노예의 명징한 사례다. 그에 따르면 의지적 노예는 “실체, 포트폴리오 모형”의 질서로 구축된 세계에서 자신의 능력 범위를 “세분화하여 수가 증가된 작은 지분에 참여”하는 식으로 “자산 다분화”에 가입한다. 그리고 끊임없이 다음의 투자 대상을 욕망한다(London, 2014, p. 68)

자신이 피폐하게 버려졌다는 괴로운 사실을 차마 직시할 수 없으므로, 주체는 ‘이런 일들(투자, 구매 등 외부적 욕망을 따르는 일들)이 자신의 행동 능력을 증강시키거나 그것에 도움이 된다고 상상하고자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비참함의 느낌을 몰아내고 이른바 자신의 욕망을 재창출하는 환희로 채운다 (...) 그리고 우리는 고용인이, 만약 그가 물질적 필요에서 자유로웠다면 흥미를 잃고 무관심했었을 일들에서 자기 이익을 찾고 만족하는 걸 보게 된다(London, 2014, pp. 69-70).

의지적 노예는 “혼합된 감정” 안에 살고 있다. 그는 기쁨 정동으로 포만하지만 공허하고, 슬픔 정동은 부인되는 가운데 상존한다. 그의 체제에 대한 동의란 충돌적인 것일 수밖에 없다. 신자유주의 체제에 대해 의지적 노예가 공선형화(co-linearization)하려는 의도가 아무리 강렬해 보일지라도 그에게 슬픔이 상존함을 부인할 수 없다. 그렇다고 해도 체제에 반하는 자신의 욕망을 자유롭게 생성하거나 표출하여 체제 바깥의 다른 식으로 살 수도 없다. 그에게 정해진 것 외에 다른 무엇인가를 할 자유란 바로 그것을 하면 안 된다는 위협과 항상 함께 있기 때문이다(London, 2014, p. 104).

한편 로르동의 의지적 노예와 비슷하게 현재 미국 대중문화의 정경에서 문화연구자인 제인 엘리엇은 “미시경제 양식”의 맥락에서 경제구조와 정동작용이 서로 분리되어 충돌하는 모순을 발견한다. 특히 그 경제

조건 안에서 형성된다고 설명하는 “미시경제적 주체성(microeconomic subjectivity)”에 대한 그녀의 해석은 미시화, 세분화된 ‘조각’을 논하는 지금의 작업에 유용하다. 미시경제적 주체성은 후기 자본주의적 신자유주의 체제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제의 기형적인 고조와 추락에, “다중의 물결, 정동의 분산, 벌거벗은 생명”이 중첩되어 나타난 결과다. “신자유주의적 통치체제, 정동노동, 생명정치 결정성”과 미시경제적 양식은 불가분의 관계 안에 있으며 상호적으로 연동한다(Elliott, 2021, p. 4).

그녀의 시각에서 미시경제의 의미는 개인의 이익과 선택을 중심에 놓고 비용을 미세하게 계산하는 논리로 이해된다. 20세기 중반부터 미시경제가 자본주의적 삶의 원리로 자리 잡았고, 오늘날 우리의 삶은, 미셸 푸코가 설명했듯이, 제한된 조건 안에서 자신의 이익을 계산하고 선택하고 행동하여 최대의 만족과 유용성을 획득하는 경영자적 태도로 실행된다. 더욱이, 미셸 푸코가 생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디지털 기술의 발달은 삶의 이해관계를 더욱 세분화하여 “프로그래밍될 대상(programmable object)”으로 변형시킨다. 자본주의, 신자유주의, 디지털화의 강화된 결합 질서에 인간의 행위가 포획됨으로써, 그것은 더욱 미분화되고 데이터화된다(Elliott, 2021, pp. 122-123).

이 상황에서 인간 정동, 문자 그대로의 뜻으로 “차이”를 만들어내는 “되어감(becoming)”과 그에 대해 효율화된 지배적인 “통제”가 교차한다. 이에 상응하여, 비개체적이고 비인지적이며 탈주체적인 정동의 삶과, 자기 결정적이고 이성적이며 고정적인 이익 질서 역시 중첩한다(Elliott, 2021, p. 127). 개체적인 차이(정동)와 체제의 통제력(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 질서)이 충돌하는 것이다. 엘리엇은 이 충돌에서 삶에 대한 공포가 발생한다고 해석한다. “생동, 생기, 삶의 지속”으로서의 정동의 개시가 억압되면서 삶은 역겨움과 두려움으로 경험되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공포장르 영화에 대한 인기 사례를 상기할 수 있는데, 이는 “고통스러운 주체”가 삶을 보존하는 과정에서 겪는 공포에 대한 대중적 공감을 나타낸

다. 공포장르 영화에서 공포는 죽음, 부패, 신체적 고통과 파괴에 대한 취약성의 감각으로 표현된다. “찢기는” 몸은 영화에서만 일어나는 허구가 아니다. 실제 삶에서 주체는 찢긴다. 즉 정동적 삶과 공포스런 통제 권력 사이에서 주체는 찢기는데, 이는 내가 “조각”이라고 부르는 주체 내과 현상이기도 하다.

행위자, 정동적 되어감, 공포는 고통스러운 감각으로 나타나지만,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선 이것을 선택하지 않을 수 없다. 삶-이익에서 의식과 삶, 되어감과 육체적 한계, 행위와 정동을 분리하는 불가능한데, 이 불가능성 자체가 공포로 나타나는 것이다(Elliott, 2021, p. 130).

즉 공포가 출혈하는 생존 게임에서 삶(정동)-이익(통제)의 주체는 항상 생존가능성을 시험당하며 타협이 이뤄진다. 그 타협의 충돌점에서 공포가 분출한다(Elliott, 2021, p. 131).

마지막으로 사회적 차원에서 투자 더 정확히 조각투자의 대중화는 어떤 결과를 야기하는가? 시간은 불균질하고 경제적 불평등은 심화되지만, 디지털 기술은 이익에 대한 욕망을 무차별적으로 보편화시킨다. 투자할 목돈이 없을 땐 조각으로 쪼개서라도, 조각에 참여할 자원이 없을 땐 부채를 얻어서라도 투자를 해야 한다는 의지와 열망을 만인에게 투입하고 실행시킨다. 그러나 앞에서 서술했듯이, 이미 불평등한 현실의 서로 다른 출발점에서 시작된 조각투자는, 디지털 기술적으로 조각화되었다는 외형적인 보편성과 동등성에도 불구하고, 차등적인 결과를 낳을 가능성이 크고 기성의 불평등 질서를 악화시킬 우려가 크다.

예를 들어 실제로는 아무리 조각투자라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목돈이 있어야 투자의 시도가 가능하다. 상층부에 부유한 투자자가 있어, 다수의 다양한 조각투자를 하고 어느 정도의 수익을 거둔다면, 혹은 다소 실패하더라도 충격이 거의 없는 반면 (소셜미디어에 자주 등장하는 “줍

있는 집안”에서 태어나 암호화폐에 투자해서 상당한 돈을 번 “갓생”), 하층부의 대중은 위에서 떨어뜨리거나 흘려넘긴 한두 조각들을 ‘줍줍’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강화하기는커녕 영혼을 팔아넘기는 ‘영끌’을 해서 위로 상승하기를 열망한다. 상층부가 판세를 주도한다면 하층부는 그저 대중적인 흐름을 추동, 확산하며 때로는 효율적으로 강화하거나 때로는 교란시킨다.

자신을 영혼을 팔아넘긴 빚투성이 개미에 비유하는 식의 극단적이고 가학적-자학적인 표현이 일상화된 상황이란 어떤 사회인가? 개인적인 차원에서 조각투자는 사회적 불평등으로 연결된다. 마우리쥬오 라짜라토는 <부채인간>에서 신자유주의의 구성원리로 부채경제 개념을 설명한다. 그는 금융, 은행, 제도적 “투자자”는 단지 투기자가 아니라고 지적한다. 투자자는 “소유자”로서, 다수의 채무를 유동화(securitization)하여 자신의 소유로 전환시키는 이들이다. 한편 국가와 사회가 제공하던 시민의 권리(복지, 건강, 교육 등)가 개인이 책임지고 구매해야 하는 서비스로 상업화되고 우리로 하여금 신용구매를 하도록 강요함으로써 시민 일반은 모두 더 심각한 부채자가 되었다. 이 과정에서 신자유주의 경제 체제는 개인적인 채권채무 관계를 넘어서, 다수의 부채를 소수의 부로 전환하는 정교한 메커니즘으로 가동된다. 누군가의 “부채”를 다른 누군가의 “이익”으로 전환하는 가치화, 축적화, 착취화 시스템이 수익을 창출하는 생산적인 기능을 함으로써, 현재의 부채경제와 신자유주의 권력관계가 상호 공고해진다(Lazzarato, 2012, pp. 20-24).

권력관계로서 부채경제의 측면은 조각투자자 사이의 간극과 불평등 현상과도 연결된다. 조각투자는 “누구나 소유자로, 누구나 기업가로 될 수 있다”는 말로 홍보된다(Lazzarato, 2012). 그러나 그 실제엔 여유돈으로 과잉소비를 할 수 있어서 사치품을 구매한 후 더욱 고가의 상향가격으로 판매하여 돈을 벌 수 있는 누군가가 있는가 하면, 실업이나 위태로운 노동으로 허덕이는 프레카리아트가 있다. 크고 작은 투자자와 프레카

리어트의 관계는 신자유주의 체제를 유지하는 필수 짝패인 소유자와 비 소유자, 채권자와 채무자, 투자자와 피투자자의 관계에 상응한다. 각 짝패에서 전자는 후자가 미래의 수익을 위해 현재 계약하고 수행해야 할 의무를 규정, 부여함에 따라 그의 미래를 선제한다. 라짜라또에 따르면, 부채인간은 앞으로 갚아야 할 의무를 스스로 짊어지며, 빚진 자의 “죄지은 양심, 기억, 경험”으로 조형된다.

지금 사회는 빚을 내서 투자를 하라는 유혹적인 강요에 따라 흘러가고 있다. 허구적인 채권자에 대한 환상으로 미래를 그리며 채무자로서의 고통스러운 현재를 살아가기를 권한다. 주체의 현재와 미래는 부채의 현실과 투자의 미래로 쪼개진다. 조각주체는 부채와 투자의 틈새에 낀 조각 같은 존재로서, 미래에 대한 과잉된 성공과 현재에서의 과도한 불안에 부대끼는 자다. “이생망(이번 생은 망했다)”을 습관처럼 중얼대는 그에게 삶은 폐기(현재)와 투기(미래)의 과정으로 치환되며 이 이질적인 시간성은 서로 충돌한다. 주체의 고통과 좌절은 상이한 시간성들이 부딪히며 그를 끊임없이 조여오고 몰아붙이는 데서 발생한다.

경제, 시간성, 문화와 정동, 사회의 차원에서 조각주체의 특징을 서술했다. 정리하면, 조각주체는 정동과 통제, 희망과 공포, 기쁨과 슬픔, 의지와 예측, 자유와 소외의 양면성 안에서 파열된 존재다. 그의 주체성에 ‘조각’이라는 수식어가 결합되는 건 우연이 아니다. 한편으로 조각으로 세분화된 행동 데이터로 통치하는 세계 안에서, 그의 욕망 역시 조각으로 미분화되며, 그의 행위 방식과 결과 역시 미시적으로 재가공, 통제되어 결국엔 그의 삶 자체가 산-산-조각이 난 현실을 함축한다.

## 6. 맺으며: 조각으로의 파쇄적 주체화

지금까지 조각투자의 기술경제적 조건을 검토하고, 그 안에서 형성되는

조각주체를 규명했다. 이를 통해 지금의 조각투자와의 연관된 사회현상을 일시적 유행으로 간주하지 않아야 하며, 디지털 플랫폼화와 금융자본주의의 질서가 결합해서 나타나는 '모든 것의 자산화' 상황의 필연적인 결과임을, 그리고 불평등하고 불균질한 그 삶의 조건에서 진행되는 주체화 양상임을 주장했다. 금융자본주의는 미시화를 통한 혁신적 금융상품 개발로 시민을 투자자로 변신시키고 디지털 플랫폼은 이 기괴한 변형이 편리하고 쉽게 될 수 있도록 보편화한다. 이 경제기술 기반에 의해서, 현실적인 불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이를 은폐하는 과대·강력한 욕망의 보편화가 진행될 때, 현재의 노예를 미래의 주인이라는 이름으로 부추길 때, 이 모순된 상황에서 주체는 조각으로 파열되어 매번 다른 목소리와 태도로 옹하고 따르고 들뜨고 좌절한다. 이처럼 조각주체는 고도로 발전한 금융자본주의 및 플랫폼 체제 안에서, 그 자신도 데이터 조각의 형태로 존재하고 행하며 조각의 대상에 투신하여, 욕망과 공포의 조각난 정동을 표출하는 주체다.

조각주체는 기술적 플랫폼화와 자산화가 주도하는 금융자본주의의 조건에서 탄생한 플랫폼 호모 이코노미쿠스의 한 유형으로 설명되었다. 기술적 혁신에 대한 민감한 반응, 성공과 수익에 대한 열정과 정교한 계산, 소비 유행에 대한 욕망으로 구성되지만 그 행동은 축소화되고 미시적인 행위와 결과로 나타난다는 점에서 조각이다. 또한 그의 내면에서부터 행위, 대상, 결과에 이르기까지 그 자신, 그 삶의 전체가 미세화, 파편화된다는 점에서 조각이기도 하다. 그는 끊임없는 모순과 충돌 안에서 조각으로 쪼개어져 있다. 흥분과 두려움, 욕망과 공포로 인해 내면은 파열되고, 혁신적 미래라는 환영이 선제하는 시간 안에서 소외되어 있지만, 플랫폼에 의해 보편화된 욕망 구조에 강력하게 흡수될수록 그 자신은 미세한 데이터 조각으로 변환된다. 미래를 향해 그를 가동시키는 것은 이익에 대한 열정과 흥분이지만, 그의 현재적 현실은 채무에 찌들어 폐기되는 공포의 시간일 따름이다.

조각주체를 플랫폼 호모 이코노미쿠스의 한 유형으로 제시하면서, 구조적 특성을 확대해 이해할 수 있다. 이익의 주체는 자본주의적 호모 이코노미쿠스의 전형이지만 근대와 오늘날의 양식에 차이가 있다. 과거엔 일부 유산계급만이 거대 규모의 투자가 가능했다면, 오늘날 플랫폼 자본주의 환경에서는 “누구나”, “쉽게”, “언제 어디서든”, “무엇”에 대해서도 투자할 수 있다고 홍보된다. 또한 실제로 이 일이 가능한 기반은 디지털 플랫폼에서 나온다. 디지털 플랫폼 기업은 미시화된 기술대상 - 조각 - 을 개발하여 현실적 불평등과 무관하게 의지만 있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고 유도하는 조각 체제를 운용한다. 경제사회 현실의 불평등성과 욕망의 보편화가 공존하면서, 투자와 성공에 대한 열정과 시도는 더욱 격렬해진다. 그러나 이 상황에서 막상 쪼개지는 대상은 조각투자 자산에 앞서 주체 그 자체다.

이 연구는 현재 가속적으로 대중화되는 조각투자가 혁신적이기보다 오래된 불평등을 심화하며, 풍요롭고 행복한 자산가가 아닌 궁핍하고 불안한 조각주체로 이끈다고 주장한다. 이 점에서 플랫폼 자본주의와 금융 자본주의의 결합 체제는 경제적이고 기술적인 구조 변동일 뿐 아니라 주체화에 개입하는 권력구조다. 그 환경에서 조각주체는 파편화된 조각들로 구성되고 그가 바라보는 세계 역시 미세한 조각들로 재편성된다. 이 가볍고 납작한 주체(김예란, 2014)는 한편으로는 열정과 흥분에 쉽게 들뜨며 정교한 이익 계산에 능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성공에 대한 환상, 유행상품에 대한 욕망, 지체와 실패에 대한 좌절과 공포에 떨고 있다. 그 틈새에서 조각주체는 더욱 작은 조각들로 축소, 분산된다. 결국 조각주체화는 삶의 생존을 위한 통합적 주체화이기보다는 삶의 파열과 소멸을 향하는 파쇄적 주체화다.

이 연구로부터 향후 가능한 주체들이 도출될 수 있다. 조각주체 개념의 사회적 설명력을 넓히기 위해선 실제 조각투자에 참여하는 집단들의 실제적 특성과 그들의 체험과 인식에 대한 경험적인 연구가 보완되어야

한다. 주로 담론적으로 살펴본 조각주체의 특징이 이 연구의 주된 내용이 있다면 실제로 어떤 규모와 방식으로 개인과 집단이 이에 함류하는지에 대한 정교한 분석이 필요하다. 또한 이 글에서는 플랫폼에서 크고 작은 규모로 투자에 참여하는 호모 이코노미쿠스를 플랫폼 호모 이코노미쿠스라는 어휘로 불렀지만, 조각뿐 아니라 여러 다양한 규모와 방식에서 일어나는 투자 양상을 총괄적으로 분석한 바탕 위에서 플랫폼 호모 이코노미쿠스 개념을 체계화할 수 있겠다. 더불어 실제 구체적인 사물의 자산화에 집중했지만, NFT나 암호화폐 등 가상적인 자산에 대한 투자로 구성되는 플랫폼 호모 이코노미쿠스에 대한 분석은 별도로 심화되어야 할 영역이다. 조각주체라는 미세화되고 파편화된 삶에서 어떤 삶의 가능성과 대안성이 생성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섬세한 관찰이 필요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노동을 통한 사회구성이 아니라 소비와 투자를 통한 사회구성 과정이 빠르게 진행되는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 현실 안에서 자유롭고 평등한 사회란 무엇이고 어떻게 가능한지에 대한 진지한 사유가 필요하다. 열정과 공포가 충돌하며 시간과 세계를 장악하는 기술자본주의의 일상 안에서 과연 주체는 사물, 화폐, 환경, 인간, 그리고 자신 그 자체와 어떠한 삶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지, 인간이 사물화되고 사물이 자산화되는 철저한 소외상황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가능성은 어떻게 창발하는지에 대한 새로운 탐색이 시작되어야 한다.

## 참고문헌

- 김대식·김동재·장덕진·주경철·함준호 (2020). <초고속 - 새로운 시대가 대한민국에 던지는 질문들>. 서울: 동아시아.
- 김예란 (2014). 불안: 그 느낌, 표정, 말들에 관하여. 박명진 (편). <두꺼운 언어와 얇은 언어: 디지털 시대의 문화변동과 담론연구>(398-435쪽). 서울: 문학과지성사.
- 김예란 (2015). 디지털 창의노동: 젊은 세대의 노동 윤리와 주체성에 관한 한 시각. <한국언론정보학보>, 통권 69호, 71-110.
- 뮤직카우 홈페이지. URL: [https://www.musicow.com/about/bridge\\_a?utm\\_source=GDN&utm\\_medium=SA&utm\\_campaign=echomarketing\\_new\\_signup\\_web\\_search&utm\\_content=0\\_brand&utm\\_term=%EB%AE%A4%EC%A7%81%EC%B9%B4%EC%9A%B0&gclid=CjwKCAjw46CVBhB1EiwAgy6M4qkJy4VyMLY-gIz7e3sAkkJrSt4eTFevBpxObKIGTX0nRGYEd-ITWhoCDkEQAvD\\_BwE](https://www.musicow.com/about/bridge_a?utm_source=GDN&utm_medium=SA&utm_campaign=echomarketing_new_signup_web_search&utm_content=0_brand&utm_term=%EB%AE%A4%EC%A7%81%EC%B9%B4%EC%9A%B0&gclid=CjwKCAjw46CVBhB1EiwAgy6M4qkJy4VyMLY-gIz7e3sAkkJrSt4eTFevBpxObKIGTX0nRGYEd-ITWhoCDkEQAvD_BwE)
- 박윤호 (2022. 6. 13). 금융권 'X2E' 新비즈니스 모델 부상. <전자신문>. URL: <https://www.etnews.com/20220611000045>
- 백옥인 (2014). 서비스 플랫폼의 진유 방식 분석에 관한 시론: '플랫폼 시대와 이윤'을 중심으로. <경제와 사회>, 104호, 174-196.
- 신혜연 (2022. 2. 25). "30만원 샀는데 230만원, 복권처럼 짜릿"...리셀로 돈버는 그들 [밀실]. <중앙일보>. URL: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47741#home>
- <연합인포맥스> (2022. 6. 8). [시사금융용어] 조각투자. URL: <https://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4217444>
- 이지현 (2022. 6. 12). 1만원이면 부동산에 그림까지 산다...조각투자의 세계. <이테일리>. URL: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233286632361064&mediaCodeNo=257>
- 이지효 (2021. 6. 18). 출근 전 7만원 벌었다...오픈런 알바의 세계 [월급이 모자라]. <WOW TV>. URL: <https://www.wowtv.co.kr/NewsCent>

er/News/Read?articleId=A202106160229

이희은 (2014). 디지털 노동의 불안과 희망: 대학생의 '대의활동'에 대한 심층 인터뷰. <한국언론정보학보>, 통권 66호, 211-241.

자본시장연구원 (2022. 5. 31). 조각투자 가이드라인의 의의와 후속 과제. <경제정보센터 웹사이트>. URL: <https://eiec.kdi.re.kr/policy/domesticView.do?ac=0000166797&issus=O&pp=20&datecount=&pg=>

채석진 (2021). 기다리는 시간 제거하기 : 음식 배달앱 이동 노동 실천에 관한 연구. <한국언론정보학보>, 통권 108호, 58 - 91.

하나금융경영연구소 (2022). [금융산업] (하나Knowledge+) 조각투자 이해하기. URL: <http://www.hanaif.re.kr/boardDetail.do?hmpeSeqNo=35209>

Adkins, L., Cooper, M., & Konings, M. (2022). The asset economy: Conceptualizing new logics of inequality. *Distinktion: Journal of Social Theory*, 23(1), 15-32.

Benanav, A. (2020). *Automation and the future of work*. New York, NY: Verso.

Benjamin, W. (2006). *The writer of modern life: Essays on Charles Baudelaire*. Cambridge, MA: Belknap Press.

Birch, K. (2017). Rethinking value in the bio-economy: Finance, assetization, and the management of value. *Science, Technology & Human Values*, 42(3), 460-490.

Birch, K., & Muniesa, F. (2020). Introduction: Assetization and technoscientific capitalism. In K. Birch & F. Muniesa (Eds.), *Assetization: Turning things into assets in technoscientific capitalism*. Cambridge, MA: MIT Press.

Boltanski, L., & Esquerre, A. (2016). The economic life of things. *New Left Review*, 98, 31-54.

- Boltanski, L., & Esquerre, A. (2019). Enrichment, profit, critique: A rejoinder to Nancy Fraser. *New Left Review*, 106, 67-76.
- Chiapello, E. (2015). Financialisation of valuation. *Human Studies*, 38, 13-35.
- Couldry, N., & Mejias, U. (2019). *The costs of connection: How data is colonizing human life and appropriating it for capitalism*. Redwood City, CA: Stanford University Press.
- Durand, C. (2017). *Fictitious capital: How finance is appropriating our future*. London, UK: Verso.
- Elliott, J. (2021). *The microeconomic mode*. New York, NY: Columbia University Press.
- Feher, M. (2018). *Rated agency*. New York, NY: Zone Books.
- Foucault, M. (2008). *The birth of biopolitics: Lectures at the College de France, 1978-1979*. New York, NY: Palgrave Macmillan.
- Hirschman, A. (1977). *The passions and the interests: Political arguments for capitalism before its triumph*.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김승현(역)(1994). <열정과 이해 관계: 고전적 자본주의 옹호론>. 서울: 나남.
- Kim, W., & Kim, B. (2020). The critical factors affecting the consumer reselling of limited edition products: A case in the Korean fashion sector. *Sustainability*, 12(19), 8181.
- Konings, M., Adkins, L., McKenzie, M., & Woodman, D. (2022). Dimensions of the asset economy. *Distinktion: Journal of Social Theory*, 23(1), 1-14.
- Langley, P., & Leyshon, A. (2017). Platform capitalism: The intermediation and capitalisation of digital economic circulation. *Finance and Society*, 3(1), 11-31.
- Langley, P., & Leyshon, A. (2021). The platform political economy

- of finTech: Reintermediation, colodation, and capitalisation. *New Political Economy*, 26(3), 376-388.
- Lazzarato, M. (2012). *The making of the indebted man: An essay on the neoliberal condition*. South Pasadena, CA: Semiotext(e)
- Lazzarato, M. (2014). *Signs and machines: Capitalism and the production of subjectivity*. South Pasadena, CA: Semiotext(e).
- Leyshon, A., & Thrift, N. (2007). The capitalization of almost everything: The future of finance and capitalism. *Theory, Culture, & Society*, 24(7-8), 97-115.
- Lordon, F. (2014). *Willing slaves of capital*. London, UK: Verso.
- Martin, R. (2002). *Financialization of daily life*. Philadelphia, PA: Temple University Press.
- McKenzie, M. (2022). Micro-assets and portfolio management in the new platform economy. *Distinktion: Journal of Social Theory*, 23(1), 94-113.
- Mehrling, P. (2017). Financilization and its discontents. *Finance and Society*, 3(1), 1-10.
- Muniesa, F. (2011). A flank movement in the understanding of valuation. *The Sociological Review*, 59(2), 24-38.
- Muniesa, F. (2021). Finance: cultural or political? *Journal of Cultural Economy*. doi: 10.1080/17530350.2021.1927151
- Negri, T. (2015). On the constitution and financial capital. *Theory, Culture & Society*, 32(7-8), 25-38.
- Rosa, H. (2013). *Alienation and acceleration: Towards a critical theory of late-modern temporality*. Malmøgade, Denmark: NSU Press. 김태희(역)(2020). <소외와 가속 - 후기 근대 시간성 비판>. 서울: 앨피.

- Scholz, T. (2012). *Digital labor: The Internet as playground and factory*. New York, NY: Routledge.
- Slaton, K., & Pookulangara, S. (2021). Collaborative consumption: An investigation into the secondary sneaker market. *International Journal of Consumer Studies*, 46, 763-780.
- Srnicek, N. (2016). *Platform capitalism*. Cambridge, UK: Polity Press.
- Tellmann, U. (2022). The politics of assetization: From devices of calculation to devices of obligation. *Distinktion: Journal of Social Theory*, 23(1), 33-54.
- Terranova, T. (2004). *Network culture: Politics for the information age*. London, UK: Pluto Press.
- van Dijck, J. (2013). *The culture of connectivity: A critical history of social media*. Oxford, UK: Oxford University Press.
- Veblen, T. (1908). On the nature of capital: Investment, intangible assets, and the pecuniary magnet. *Journal of Economics*, 22(4), 517-542.
- Zaucha, T., & Agur, C. (2022). Newly minted: Non-fungible tokens and the commodification of fandom. *New Media and Society*. doi: 10.1177/14614448221080481

투 고 일 자: 2022년 07월 05일

심 사 일 자: 2022년 08월 06일

게재확정일자: 2022년 08월 24일

## Abstract

# Micro-subject as Platform Homo Oeconomicus

Micro-investment, Resell and Fragmented Affect

Yeran Kim

Professor, School of Media and Communication, Kwangwoon University

This study explores the techno-economic condition of micro-investment and examines the way in which the micro-subject emerges in such conditions. Assetization and digital platformisation induces that everyone becomes an investor and everything turns into an asset. The current financial capitalism relentlessly invents innovative financial services through which poor citizens are incessantly seduced to transform the self to an investor, while digital platform contributes to the universalization of the absurd desire for self-transformation. The techno-economic forces renders the desire for ownership to grow in the mid of the actual impossibility, and calls the slaves owners. Such a contradictory condition is constitutive of the micro-subject, who keep responding, serving, and getting excited and frustrated in different voices and gestures facing the capitalist callings. The micro-subject is the product of financial capitalism and digital platform regime, as the one who, conducts and is treated as the micronised-self, and throw the self towards the micro object, and who is crushed in affective micronization, in the conflict affects of passion and fear.

**KEYWORDS** Micro-investment, Resell, Assetization, Platform, Micro-subject, Platform Homo Oeconomicus